

자율경영권 요구 '불씨'

BBS 본사-지방국 불협화음 예견

지방국 광고수입 전용·로컬프로 확대 주장

본사 1사1법인 원칙 고수...이사증원 불가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BBS지방국이 지난달 20일 대구에서 지방국의 재정지립과 자체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국 광고수입의 전액 지방국 사용,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특수성과 목적성을 살린 자율적인 지방국 운영, 지방국 개국에 사용된 출자액에 비례한(6억당 1인의 이사자격 부여) 이사자격 부여 등을 요구하고 나서 서울 본사와의 불협화음이 우려되고 있다.

BBS 본사는 "불교방송은 종교방송으로써 93년 정보통신부의 지방국 허가 당시 1사1법인을 원칙으로 재단법인 불교방송(이사장 종하스님)의 지국으로만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분리라는 지방국의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불교방송의 '지방국 설립 및 운영규칙(안)'의 제6조 1항에 보면 "재원조달은 본사 지방국 설립준비위원회의 협조하에 설립당해지역의 추진위원회에서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국 개국은 지역사찰과 몇몇 불자들이 주축인 지방국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성사시켜야 한다.

지방국의 이같은 특수한 상황은 방송국 운영에 늘 잡음이 되어왔으나 본사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마침내 지방국의 자율권 요구의 목소리로 나타난 것이다.

3개 지방국 임원진 측은 "1사1법인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해 지방국마다 특성을 살린 자율권을 최대한 주어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대신 본사는 감사제도를 강화해 지방국을 철저히 감시한다면 별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13%의 로컬방송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고, 청취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광고수익금을 지방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의 경영의 자율권을 확보해 프로그램 제작에 자율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방송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방국의 재단이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본사의 관계자는 "광고수익금을 둘러싼 문제는 본사와 지방국이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조절한다면 적절한 타협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방국 임원진 3인의 이사회 진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장관 제5조에 '이사는 2인 이내(이사장, 사장, 상임이사 각1인 포함)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이사의 정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지방국 이사가 1인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사회의 차원에서 정관개정등의 큰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재단이사회는 1사1법인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지방국의 이사회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국의 자체제작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은 지방국의 위상강화와 지역 불교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결국 이번 BBS 본사와 지방국의 마찰은 지난 1월 발생한 경리사고와 맞물려 누적돼온 불교방송의 구조적 문제가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국은 재정여건을 이유로 적절한 지방국 관리와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난 경리사고의 발생으로 지방국은 지금까지 돈만 투자하고 재원은 챙기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문제는 본사와 지방국 서로의 권리와 요구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교방송인 불교방송에 맞는 적절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만이 최선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자 기자



△ 탑골공원에 마련한 '자비의 탁발' 특별무대에는 김홍국 김태근 송춘희씨 등 불자연예인들이 다수 참석,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사진=고영매 기자>

"동포에 일깨우는 자비 물결"

조계종 '탁발행사' 이모저모

○... 3백여명의 스님들과 3천여 불자들이 참여한 '자비의 탁발'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과 종회의장 설정스님을 선두로 2개조로 나뉘어 조계사에서 종묘공원-탑골공원에 이르는 양쪽거리에서 탁발을 실시했다. 거리에 미리 나와가 다리던 신도들은 탁발에 나선 스님들을 함장으로 맞으며 발우에 성금을 넣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함께 탁발에 참여한 승가사

와 신남국 국민회의부총재가 탁발에 참여했을 뿐 여는 행사와는 달리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발걸음은 뜸했다. 서석재 국회의원장과 김영수 문체부장관은 측근인사와 김용문종무실장을 보내 금일봉을 전달. 총무원장은 행사기획 단계에서 정치권 및 관계 재계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며 모금보다는 한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나눔의 정신을 전파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일반인·사회지도층인사 발길 적어 아쉬움 서울 모금 4천여만원... 북한동포 등에 전달

신도 김순임씨는 "아이들에게 나눔의 귀중함을 가르치는 산교육을 체험케해준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 당초 총무원장은 8천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아쉬운 표정. 지난 2월 18일 직할교구 주지간담회를 통해 탁발행진 구간을 각 사찰에 할당해 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조계사 구룡사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청룡사 외에는 5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 탑골공원 행사장에는 김봉은신부(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의장)

정성운 기자

시론

고독하지 않은 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의 취임 4주년 대국민 사과담화를 들으며 '그래도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초대 대통령은 망명하고 3공화국 박정희대통령은 부하에게 총격당해 사망하고 5·6공화국을 거친 후 우리는 두 사람의 전직대통령이 자신들의 지난 과오에 대한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지금 모두 갇힌 몸이다.

'대통령 사과' 보는 국민

나라나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과오를 범한 사람을 단죄하는 일은 역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므로 국민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날의 국민의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대통령이란 '성역(聖域)'에 가까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현직에 몰락하고 있을 때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비판했어야 했다. 그들이 권좌에서 있을 때 사과하고 과오를 고치도록 해야 했을 것이다. 그들이 권좌에서 물러난 뒤에야 벌떼처럼 따지며 단죄를 시킨 것이 아무래도 모양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김대통령의 사과담화는 현직 대통령이 측근 비리와 아들이 부린 잡음에 대해 사과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비록 지금이 권력누수가 시작된 마지막 남은 임기 1년전이란 헛점이 있긴해도 그렇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언젠가는 한국국민도 임기를 깨닫고 정의롭게 마감하는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만들어낸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식은 언제나 함수관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해방후 국민의식이 지금만 같았다면 이승만박사를 독재자로 만들지 않았을런지 모른다. 지금만 같았으면 5·16군사쿠데타가 성공했을 것 같지 않다. 당시 국민의식의 총체가 독재자들을 만들었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혼란도 민주주의의 정착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남북분단과 6·25전쟁 등 그밖에

도 장애요인이 많았음에도 한국인은 문명정부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제 대통령이라 해도 법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그런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그런 시민의식에 눈 떠가고 있다. 김대통령의 사과담화도 이같은 시민의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왔을 것이다.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은 골잡 파천황(破天荒)의 인물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일이 없지 않다. 하지만 파천황의 인물이란 카리스마를 연상시킨다. 민주주의적 사회 발전에 과연 카리스마가 필요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만들어 낸다' 말에는 그런 뜻이 포함된다. 발전이 느리더라도 국민의식 성

장권을 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망명, 피살, 단죄, 현직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진 현대사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 의식 발달사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성장기의 아픔이라 할까. 그만큼 경험과 역사과정의 귀한 회상을 바탕으로 사회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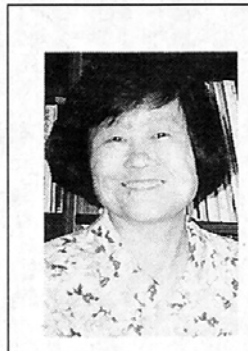
김대통령의 사과담화문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뽑아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중요한 고비마다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른 것인가를 고려하며 밤을 지새웠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독하고 어렵고 외롭고 험난한 것이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은 대통령이 지난 4년동안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남의 도움을 얻지 않고 혼자 애를 썼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혼자 풀수 없는 나랏일

흔히 '지도자는 고독하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 우리도 그런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 말도 지난 시대에나 어울리는 말일런지 모른다. 무엇이 결정하는데 혼자해서야 안된다. 중대한 결정일수록 그렇다. 많은 사람이 모여 마음을 터놓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지혜를 짜내면 보다 좋은 대안이 생길터이고 지도자는 결코 고독하지도 않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고독은 자신의 독단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는 '고독하지 않은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정자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 불교 연중캠페인

마음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30분이 걸린다. 이른 아침의 그 시골길은 오르거나 혼자만의 것이다. 한기(寒氣)들이 허공 가득 뿜어내는 겨울 특유의 강기들을 헤치며 걸다보면 정신은 어느덧 투명하게 맑아진다. 마음 구석구석을 둘러 나오듯 걸음을 옮기며 생각을 추스린다. 그렇게 혼자만의 골골한 생각에 잠기고 또 등언 지리에 더운 기운이 돌 만큼 걸다보면 어둡고 마음이 화 풀린다.

학교까지의 이 오묘한 출근길을 나는 사랑한다. 그 길 위에서 때로는 나를 살핀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상화시켜서 되살리고 끊임 생각하는 것이다. 학교

일, 집안의 이런 저런 걱정거리들에서부터 혐이상의 삶의 의미까지 되짚어보는 것이다. 아침녘 특유의 찬공기 속에서 나는 혼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내가 잘못 했구나'하며 잘못 대하

반성속에 참나 찾아

고 걸으며 마음 쓴 일들을 뒤우친다. 또는 가족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알은 계산을 하고 그렇게 처신한 일들을 뒤우친다. 아니, 몇년째 차매에 든 아버지에게 "이제 당신의 때는 갔습니다"라고 혼



홍신선 <신간 수필가(현직 판사)>

자말한 일을 뒤우친다. 작년 가을 교통사고로 먼저 간 아들에게 따뜻한 마음 써 주지 못했던 일을 뒤우친다. 자기 자신의 기억 골목골목을 이렇게 돌아보면 뒤우칠 일이 꾸역꾸역 쏟아져

나온다. 고목처럼 큰 상수리나무들이 묵연히 내려다 보고 있는 산길을 벗어나면 마을이 나타난다. 옛날이 참연한 낡은 집들보다 신흥개발지처럼 갖가지 집들이 더 많은 동네이다. 그 동네 어귀에서 나는 마음버스를 탄다. 나를 되살리고 행거던 시간에서 일상의 잡담으로 몸을 실는 순간이다.

인간은 자신을 대상화할 줄 아는 능력 때문에 반성이 있고 참회가 가능하다. 반성과 참회 속에 참 '나'를 순간이지만 만난다. 사람에게 이성의 힘이 있어서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일찌기 독일의 포이어바하의 것이기도 한 것. 그리고 대상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뒤우치는 그 자리에 무한 자비와 사랑이 자리잡는다. 문득 버스는 마음이 지옥임을 지나 특정한 깨달음의 길로 바뀌어 서고 있다.

생활 속의 불교 112

강물은 독을 만들고 그 독에 갇혀 흐른다.

"자기 습은 때지 않은 채 걸리지 않는 여여한 법 도리만 따지고 있으면 될 일인가. 먼저 자기를 알지도 못한채,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거나 공(空)이겠거니 하고만 있다면 천년 만년을 그렇게 해도 아무 소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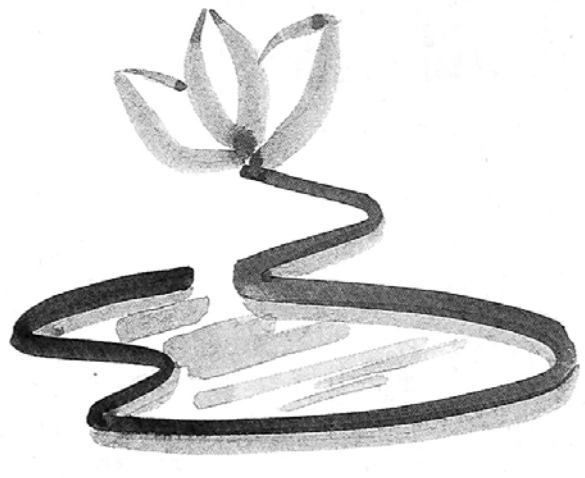
세상에 어떤 감옥보다도 무서운 감옥이 바로 관념의 감옥이다. 그 벽은 가장 넓기 어려운 은산철벽이다. 수행이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 벽을 깨는 것.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사실 벽이란 본래 없으나 스스로 벽을 쌓아 올린 것이다. 뜻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지어 놓은 것이다. 고로 본래 벽이 없음을 알려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나무 꺾임에 글자를 새겨 놓으면 나무가 크는 대로 글자도 커진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다시 새로운 행위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걸림없는 행이 아닌 한, 마음의 심층에 남겨진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마치 나무에 흠집을 내 놓은것 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런 흔적이 남는지를 잘 알아 채지 못한다. 심한 충격이나 깊은 슬픔, 거둬지는 회한의 경우는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이 맺힌 상태라고 표현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저 흘러가 버린 일로 알게 된다. 그러나 느끼지 못한다고 혹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다고 해서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번 일어난 것은 반드시 입력이 되고 입력된 것은 어느 때든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세계는 종문서로 가득 차있다고 한다. 결정 말씀으로는 '마음에 남은 습기를 원동력으로 하여 온갖 것이 생겨난다'고 되어 있다.

속담에 '고기 덩이를 먹어 본 개'라는 말이 있다. 한 번 맛을 보고 나니까 자꾸 먹고 싶어 안달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습기의 무서움을 빗댄 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 어느 불면증 환자가 늘 수면제를 복용해오다가 어느 날엔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로 잠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서 하



는 말이 '하마터면 수면제를 안 먹고 잠들겠'했다. 습관이란 그렇듯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습기를 두려워 하는 표현은 다양하다. '그것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가는 사슬이나 알았을 때는 끊기 어려운 사슬이 된다.' 습기는 내부의 전체 권력자이다. '우리는 매일 습관이라는 노끈을 꼬며 살고 있다.' 습기는 노비문서이다.

신·구·의로 짓는 일이 우리를 구속하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관념의 감옥에 갇힌 꼴이 되고 우리의 삶은 앞 뒤로 은산철벽이 꼭 막아선 형국이 된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런 상태를 감각하게 느끼지는 커녕 예지 증지 하면서 하루 하루 순간 순간마다,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내 생각 내 느낌 나의 관념을 고수하며 산다. 그것이 되풀이 와 나를 더욱 꽁꽁 묶는 줄을 모르고 산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인 셈이다.

내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오래 쌓이고 쌓인 벽을 허물어야 한다. 마음에 각인된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것이 자유이요 수행이다. 또 나아가서는 일상 생활속에서 더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의 힘껏임을 쉬는것, 놓고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자면 자기를 되비쳐보고 그 짓는 마음의 뿌리를 캐내야 한다.

습기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대신 좋은 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쌓는 일이 그것이다. 경건 말속에 나쁜 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의심주 돈 권력 명예 따위를 탐하지 않는 것, 정법을 비방하지 않는 것, 바른 길을 가는 빛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다. 좋은 일이란 나쁜 일이란 한 번 길이 나면 그 길을 따르기 십상이다. 강물은 강 독을 만들고 그 강독을 따라 물이 흐른다.

협찬 : 정 규 상